



1



2



3

1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2년 신제품 2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글렌버기 증류소 3 7.5t 용량의 매시턴은 당을 농축하는데 사용된다

##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까지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의 대명사 발렌타인이 싱글 몰트 12년 산인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2년'을 출시했다.

발렌타인은 지난해 200년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글렌버기 15년', '밀턴더프 15년', '글렌토커스 15년' 등 세 가지 핵심 몰트 위스키를 선보였다. 이 세 가지 위스키는 발렌타인 위스키 블렌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보인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2년'은 브랜드 첫 싱글 몰트 12년산이다.

이번 신제품은 1810년 설립돼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생산됐다. 이 증류소는 품질 보장을 위해 13년 전 재건축됐다. 이곳 위스키는 아메리칸 오크통에서만 숙성되는데 이는 발렌타인의 시그니처인 바닐라 향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이 위스키는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12년간 숙성된 싱글몰트 원액으로 탄생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감미로운 토피 애플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고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된 풍부한 바닐라 향이 한층 더 풍성한 풍미를 선사한다. 또 은

은한 헤이즐넛 향이 깊은 여운을 선사해 싱글 몰트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발렌타인은 숙성된 오크통의 그윽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향미를 갖춘 이 위스키를 연말에 더욱 특별하게 즐기려면 생강주가 들어간 얼음을 넣고 소다를 더해서 하이볼을 만들어 볼 것을 추천했다.

만드는 방법도 간편하다. 생강술(King's Ginger 500ml)과 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은 시럽 100ml를 혼합해 함께 얼린다. 생강 뿌리를 그대로 사용할 때보다 순하며 생강의 미묘한 향은 위스키 본연의 달콤한 맛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발렌타인 관계자는 "발렌타인 싱글몰트 위스키 15년 3종을 선보인 후 발렌타인 싱글 몰트 12년 글렌버기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며 "이번 신제품은 싱글 몰트 위스키 애호가뿐 아니라 입문자까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위스키로 그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격은 700ml 기준 7만4천200원(공급가)이다. ①